

◎ 동북아 전력망 연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논의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21일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남한~북한~러시아를 잇는 전력망 연계사업과 가스관 연결사업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는 것이냐는 전망이 쏟아질 만큼 김 위원장의 행보는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3국을 연결하는 송전선 구축 프로젝트는 2003년부터 동북아 전력망 연계사업으로 추진됐다. 러시아와 북한, 한국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중국과 일본까지 확장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한전은 사업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력망이 연결되면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계통 연결과 안정적 송전망 구축 등의 기술적인 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늘 그렇듯 문제가 되는 건 정치적 요인이다. 남북이 기 싸움을 하는 동안 세계 기업들은 기술과 사업적 측면에서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에너지자원 안보 논의의 변방에 머무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 에너지 절감, 공감대 형성이 우선

기록적인 폭우 이후에 더위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일교차가 심해 가을과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전력수요 예측이 빗나가면서 크게 우려됐던 전력난 없이 여름이 지나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상치 못한 기후로 전력대란을 피한 듯싶지만 공교롭게도 이웃나라 일본은 폭염에 의한 짐통터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도쿄 최고기온이 37.2℃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전력대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날 도쿄 최대전력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다. 예비율도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일본 정부는 일부 지역과 대기업 등에 전력 사용 제한령을 내렸으며, 국민들도 절전 운동에 적극 동참하면서 전력난을 이겨내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한송전을 할 만큼 전력난을 겪으면서 전기절약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날씨 덕에 큰 탈 없이 여름을 넘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너 나 할 것 없이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

정책과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KEA